



즉시 배포용: 2018년 10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피츠버그 및 켄터키에서 벌어진 혐오 범죄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조기 계양할 것을 지시하고 평화 및 시민의식 요청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피츠버그 트리 오브 라이프 시나고그(Tree of Life Synagogue), 켄터키 제퍼슨타운 슈퍼마켓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10월 29일 월요일부터 11월 4일 일요일 일몰까지 모든 주 정부 건물에 조기 계양할 것을 지시하고 끔찍한 총기사고와 폭탄 테러 시도가 한 주에 벌어진 이후 평화 및 시민의식 요청을 발표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혐오는 극도에 달했으며 폭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치적 폭탄 테러 시도, 켄터키에서 벌어진 인종 차별주의 공격, 피츠버그 트리 오브 라이프 시나고그(Tree of Life Synagogue)에서 벌어진 반유대주의 난사로 인해 전국이 떨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희생자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애도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유대인 커뮤니티, 우리의 다양한 사회 기본 구조를 구성하는 모든 커뮤니티들과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외 가장 많은 유대인 인구를 가진 주의 주지사로서 저는 종교 단체가 폭력과 편협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는 종교와 상관 없이 안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주 사건들은 한 국가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양성은 가장 큰 힘이며 우리의 다양성을 비판하고 분리를 조장하는 것은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을 약화시킵니다. 혐오적 미사여구와 폭력은 미국의 근본을 흔들고 있으므로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암흑의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결속해야 하며 분리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먹는 파괴적인 혐오의 힘에 반드시 함께 맞서야 합니다.

이러한 공격에 뒤이어 다양한 배경 출신의 뉴욕 주민들은 우리 주와 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반대하는 이러한 공격 행위를 규탄합니다. 저는 끔찍한 총기 난사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조기 계양을 지시합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과 함께 평화와 시민의식을 요청하고 모든 형태의 혐오를 고발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